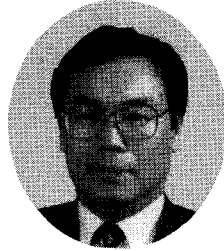


제 7차 APT 총회 및 제 20차 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강 민 호

한국통신 해외사업본부 본부장

TTA 통신표준총회 의장

APT(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 연구반 의장

1. 머리말

21세기 세계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경제 및 사회적 발전에 부응한 전기통신의 균형있는 발전도모와 역내 전기통신기관 상호간의 기획기능과 운용절차를 조 절코자 정부간 기구로 1979년 2월에 태국 방콕 에서 아·태전기통신협의체(APT)가 설립되었다.

세계 정보통신환경은 정보 및 통신기술의 빠른 발전 및 초고속 통신망 구축추진 등으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 위하여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등을 위해 국제기구 활동 강화 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런 요구에 부응코자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

에서는 APT 사무총장과 연구반회의 의장 등과 같은 주요 직위에 진출하여 아·태 지역의 전기 통신 분야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APT회의는 일반정책 수립, APT 예산기 준 및 지출예산 한도액 설정을 위해 매 3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와 총회에서 결정하는 정책, 원칙 및 지시사항 수행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관리위 원회가 11월 12일부터 21일까지 말레이시아 수 도 쿠알라룸푸르에서 동시에 개최되어 26개국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래에 요약된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2. 회의내용

〈총 회〉

□ 총회 의장단 선출

- 기존 의장단(의장 : 인도네시아 Dr. Djakaria Purawidjaja, 부의장 : 스리랑카 Mr. Asoke Dez Gunneskera, 이란 Mr. Hossein Mahyar)의 3년 임기 만료로 새로운 의장단 구성
- 의장은 말레이시아 에너지통신부 Mr. Haji Hod Bin Parman(통신국장) 부의장은 이란 Mr. Hossein Mahyar가 유임되고 새로운 부의장으로 몽고 기반개발부 통신개발국장 Mr. Bilaec Sukhbaatar 선출
- * 의장은 동일 직위 3선 제한됨

□ 수석대표 기초연설

- 호주는 APT 재정에 대한 각국간의 공평한 부담을, 중국은 APT가 기술협력, 기술이전에 보다 많은 Priority부여를 일본은 표준화등 AII의 구체화를 강조하였으며
- 한국은 지난번 제16차 APT 연구반회의에 대한 각국의 지원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의 말을 하면서 APT가 계속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정보통신기구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기초 연설을 하였음
- 북한은 이번 회의의 성공과 APT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대표연설

□ 차기회의 정책 목표

- 주요내용
 - 자유화, APII, 주파수 조정, 고위급 회담추진 등 정책문제
 - 망의 고도화, 표준제정, 기술이전, R&D등 기술발전
 - 기반설비확충, 낙후지역 통신개발, 인력개발 등 전기통신 확충
 - 지역간/지역내 협력증진, 전기통신 실무그룹, 지역대변 등 지역간/지역내 협력
 - APT 사무국과 회원국간 관계강화
- 위 내용에 대해 싱가포르를 국제기구와 관계설정시 ITU, APEC 등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을,

인도는 주파수 조정은 관련 국가간 주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APT는 이외 지원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한국은 국제기구의 업무협의를 통한 중복의 최소화를 언급, 위 내용을 첨부하여 승인

□ MC 의장의 전기('94~'96)활동 결과 보고

- 보고서 채택
- * GA와 MC와의 관계설정 및 회의순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APT 재정강화에 관한 호주제안 수정채택

- 회원국 및 협찬 회원사의 분담금 재고
- 각국은 각국의 전기통신 사업자를 협찬회원으로 가입토록 촉진
- 협찬회원포럼 구성
- 관리위원회와 사무국은 APT 재정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각종방안 강구(전시회, 세미나등)
- 상기 내용을 구체화하는 실무작업반 구성
 - 반장 : Mr. Bilgee Sukhbaatar 총회 부의장
 - 구성 : 호주, 중국, 홍콩, 인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싱가포르

□ 차기회의 연간 지출 상한선 설정

- 매년 9% 인상 범위내에서 MC가 구체적으로 결정
- * 9%설정근거 : 인플레이(6%) + APT활동 강화(3%)

□ 차기회의 국가별 분담금 확정

- 대체적으로 예년 수준임
- 한국은 향후 국가별 경제수준을 감안한 분담금 재조정 및 아·태지역에서의 전기통신 위상강화를 위해 한국의 '97년 예산(APT의 '98년 예산)부터 인상 통보
- 정부 : 10단위 → 20단위

- KT : 2단위 → 3단위
- 데이콤, KMT : 0.5단위 → 1단위

- 예산 배정 지침에 관한 호주제안 수정채택
 - 호주는 APT 차기회의 목표별 구체적 Portion을 정한 예산배정 지침을 GA가 결정할 것을 제안
 - 전기통신 확충 : 50, 정책 기술발전 : 각 20, 지역간/내 협력 및 관계강화 : 각 5
 - 한국을 비롯한 각 회원국은 구체적 Portion은 전기통신의 급격한 환경변화 등에 대한 기구의 flexibility를 제한할 가능성이 많음을 언급하면서 대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MC가 이를 고려토록 권고
 - 차기회의 목표별 우선순위
 - 전기통신 확충(1)
 - 정책문제, 기술발전(2)
 - 지역간/지역내 협력, 회원국과 사무국간 관계강화(3)

- 차기회의 장소 결정
 - 이란이 제8차 총회 및 제23차 관리위원회 유치를 공식 제안하여 승인

〈관리위원회〉

- 관리위원회 의장단 선출
 - 제19차 관리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Mr. R. Scoble(호주) 사임으로 재선출
 - 의장으로 기존 부의장인 Acting Chairman인 Mr. Narinder Sharma(인도전기통신 부국장), 부의장으로 필리핀의 통신위원회 Mr. Ficlelo Q Dumlao가 선출되었음
 - 기존 부의장인 사이크
 - 인도네시아의 Mr. Baubang는 후보사퇴
 - 이번 선출된 의장단의 임기는 '96년 11월

부터 '98년 11월 까지임

- '96년 활동보고
 - 사무국에서 세미나 및 회의 7회, 훈련 및 연구방문 240m/m, 전문가 파견 3회, 연구반 회의등 Work program과 예산, 국제기구간 협력등을 보고, 이를 관리위원회가 승인
 - APT와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보고에서 ITU이사회 보고서 및 ITU의 Asia Telecom '97,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 제1차 세계전기통신정책포럼, 세계무선회의등 주요활동보고

- 제16차 연구반회의 보고
 - 강민호(KT 해외사업본부장) 연구반 의장의 연구반 회의결과 보고 및 김혜영(MIC 국제기구담당관) 연구반 개선반장의 연구반 개선반의 권고 보고가 있었음
 - 연구반의 활동을 아·태지역 정보기반 강화에 주력하면서 반을 SG1 정책 및 규제, SG2 신기술, SG3 무선, SG4 유선으로 나누고 각 반별 연구과제도 3개이하로 규정
 - 위의 연구반 개선권고를 기반으로 차기 연구반 의장단 및 연구과제가 선정되었으며, 과제별 감사, 보조감사도 결정
 - 우리는 CDMA과제 간사로 ETRI 권동성, ITS과제 보조간사로 KT 유희열, 위성과제 보조간사로 KMT 신창윤 활동

- 예산 평가 및 책정(예산 실무작업반)
 - 진행
 - 필리핀 Mr. Fidelo Q. Dumlao 사회하에 사무국 차장과 담당직원의 보고와 이에대한 대표단의 질의형식으로 진행
 - '95년도 회계감사, '96년 수정예산심의 및 '97년 예산심의
 - 주요쟁점사항

- 작업반 진행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 예산세부내역에 대한 필리핀과 싱가포르의 일방적 질의와 사무국의 답변이 계속 반복됨. 이에 대해 호주측은 보다 상세한 예산자료를 사전 배포하고 소그룹을 구성, 계속 심사하여 MC에서는 쟁점사항만 상정토록 제안
 - 동 제안을 한국과 일본 등이 지지하였고 이를 '97년부터 고려하기로 결정
 - 직원의 신규채용
 - 사무국은 APT활동강화를 위해 직원 신규채용제안(G-staff 3명 소요예산 U\$ 54,478)
 - 각국은 예산 등을 이유로 1년 계약으로 2명만 채용토록 제안, 결정
 - 특별분담금의 회계처리
 - 회원국의 특별분담금으로 개최하는 세미나 및 Meeting의 경비중 일부를 APT 예산에서 지급
 - APT 예산으로 특별분담금을 지급함으로써 예산운용의 비효율이 발생함을 지적
 - 특별분담금을 통해 회원국이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APT가 부담
 - 사업 실무작업반 보고(MC, plenary 제기)
 - 이번 GA에서 결정한 WG에 election procedure를 포함토록 하며, Ad-hoc Committee를 Study Group 3 으로 변경 추가토록하여 작업반 보고 승인
 - 예산 실무작업반 보고
 - '97년 지출을 '96년보다 6.33% 늘어난 US\$ 1,719,690으로 확정
 - '97년 단위 분담금을 GA의 9%내인 6%로 인상 결정
 - 한국의 분담금액은 10단위 × 7,640(Unit cost)=US\$ 76,400
 - 총수입은 분담금 US\$ 1,470,700(192.5단위 × 7,640)
 - 전년도이월 US\$ 618,200
 - 기타 US\$ 65,750으로 총 US\$ 2,154,660임
 - 기존 독자 계정인 출판수익을 정상 예산에 포함시키도록 결정, 보완하여 승인
 - 사업평가 및 계획(사업 실무작업반)
 - 진행
 - 사이크 부의장의 사회와 사무총장, 담당 전문가의 보고와 이에 대한 대표단의 질의형식으로 진행
 - '96년 사업평가, '97년 사업계획 심의
 - 주요쟁점사항
 - GA에서 결정한 우선순위 부여 관련 구체적 항목의 범위에 대한 논의
 - GA에서 결정된 우선순위 부여는 실제적용이 힘들것으로 보여짐. 그러나 APT목표에 대한 상징적 의미는 있음
 - '97년 사업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장비에 대한 상호형식승인 협정(안) 준비와 관련하여 이 건이 APEC에서 구체화 되고 있으며 또한 APT에서 추진되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으로 동제목을 MRA에 관한 연구로 수정
 - 전시회, 정보확산 등을 통한 통신네트워크 발전과 관련 회원국들은 특히 전시회 개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그러나 호주측과 일본측은 재정을 이유로 소극적 입장.
- 이와관련 내년에 feasibility Study를 할 것을 결정
- 세미나, 회의개최등 제안
 - 중국은 '97년 3월 High level Meeting and Asia Pacific Development Strategy를 Colloquium on trade issues와 연계하여 개최함을 제안
 - 일본은 Seminar on Telecommunications Administrative Policy를 1998년 1/4분기에 개최함을 제안, 이를 승인
 - GMPCS 작업반을 WTPF작업반으로 확대

개편 GMPCS 작업반 존속에 대한 한국측의 문제제기로 현재 멤버를 확대하고 논의 대상도 GMPCS 뿐만아니라 '97년 7월 ITU이사회에 대한 input, WTPF결과인 MOU에 대한 검토 등으로 확대토록하고 의장과 멤버를 재구성키로 함

□ 회의기간 단축

- 한국은 MC의 회의기간을 3일 Working day로 축소토록 제안
- 회원국은 대체로 찬성하였고, 사무국은 회의기간을 최소화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

(표1) '97 APT 회의 및 세미나 계획

회 의 명	장 소	일 시	비고
1. 지역협력 표준화회의	도쿄	2.18~20	특별분담금(일본)
2. 아·태 전기통신개발 고위급 세미나	상해	5월	
3. 소지역 실무회 : 남아시아지역 동남아시아지역	파키스탄 라오스	5월 -	AII 2차회의권고
4. AII 고위급개발회의	?	6월	
5. a) WRC97 전문가회의 b) WRC97 지역회의	태국 태국	4월 7/8월	
6. 제17차 연구반회의	?	8월	
7. 제21차 관리위원회	?	11월	

3. 맺음말

이번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APT 총회 및 관리위원회회의에서는 APT의 미래를 비롯, 재정강화를 위한 회원국의 분담금 현실화를 결정하였고 또한 각종 사업들이 많이

보강되어 향후 APT의 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APT에 대한 보다 효율적, 능동적 활동을 통해 아·태지역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의 해외진출에도 APT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